

몰트만의 종말론에 대한 개혁주의생명신학적 이해

장 성 진

◆ 소록

이 글은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적 배경, 희망의 신학, 종말론적 신학과 이에 대한 개혁주의생명신학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희망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교회가 세상에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몰트만은 이를 통해 종교 사회주의 운동이나 자유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말론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몰트만은 종말론적 희망이 일그러진 현실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강조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 역시 전통적 개혁주의신학에 비해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몰트만의 종말론이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접촉점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위르겐 몰트만, 개혁주의생명신학, 희망의 신학, 종말론

I. 들어가는 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은 전통적으로 신학의 부록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종말론을 신학적 토의의 중심에 세운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종말론을 신학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신학 자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는 철저히 종말론적이며 희망이고 앞을 향한 전망과 성취이다. 그는 종말론이 기독교 신앙의 매체라고 판단한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살며, 파루시아(parousia), 즉 재림의 약속을 통해 역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종말론은 미래의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역사는 종말론을 삼켜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현재적인 영원이 모든 역사를 폐기시키지도 않는다. 헤겔(Friedrich Hegel)과 같은 신학자는 역사의 절대성을 주장한 나머지, 역사가 정반합(正反合, thesis-antithesis-synthesis)을 되풀이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역사관을 주장함으로써 선악이 최종적으로 판정되며 선의 승리가 보장되는 역사의 종말을 확보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어거스틴(St. Augustine)과 같이 현재적 영원을 강조하는 신학자는 역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헬라 전통에 맞서 히브리 전통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어거스틴 등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비판하면서 현재적인 영원으로 모든 역사를 폐기시켰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몰트만은 역사와 관련하여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양 극단을 피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을 향해 보는 방식으로 인간 역사를 보기보다는 종말의 시점에서 현재 시점으로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인간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이 미래에 오심이라는 재림을 미래(Futur)로 여기기보다 강림(Advent)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몰트만에 따르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시는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기보다 우리의 현재 역사에 들어와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임재인 셈이

다. 이 점에 있어서 몰트만은 종말론을 신학의 끝 부분에 붙는 교리로 여기지 않고 신학 자체를 이루는 핵심 교리로 여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II. 몰트만의 신학적 배경

그런데 몰트만이 기존의 다른 신학자들과 달리 종말론을 그의 신학의 핵심으로 두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몰트만의 신학이 그가 역사적으로 겪은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26년 독일 함부르그(Hamburg)에서 출생한 몰트만은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세속 교육을 받고 자랐다. 16세가 되던 해에 몰트만은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을 그의 모델로 삼았으며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했다. 그의 관심은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에 있었지 신학에는 없었다.

독일인 몰트만은 18세가 되던 해에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했다. 그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렀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당시 독일을 지배했던 히틀러 정권에 의해 징병되었다. 군대를 가면서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독일 문학가 괴테의 시집들과 독일 철학자 니체의 저술들¹⁾이었다. 그는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일 관념론을 따르는 시인들과 철학자들과 더불어 성장했기 때문이다.²⁾ 1945년 그는 벨기에 지역에 있는 독일 숲(Reichswald)에 파견되었다가 그가 처음 만난 영국군에게 투항해서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가 전투에 참여한 지 6개월만의 일이었다. 처음에 그는 벨기에에 있던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수용소는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사진들을 독일군 포로들에게 공개했다. 몰트만은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의 조국 독일이 행한 일을 직면해서

-
- 1) 대표적인 책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 2) 몰트만이 신학을 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을 따르기보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향한 모험’으로서의 신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몰트만은 1945년부터 1947년까지 여러 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벨기에 포로수용소로부터 스코틀랜드 킬마르녹(Kilmarnock)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옮겨져서 독일군 폭격으로 인해 부서진 지역들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독일군 포로들에 대해 환대를 베풀었는데, 그는 이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시기에 그는 군목들로부터 신앙과 시편이 담긴 작은 성경을 받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발견하셨다”고 고백한다. 그는 1946년 7월에 영국 노팅엄(Nottingham) 근처에 있는 쿠크니(Cuckney)에 있는 노턴(Norton) 포로수용소로 옮겨졌다. YMCA가 운영하던 이 포로수용소에서 몰트만은 많은 신학생들을 만났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그는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인간의 본성과 운명』³⁾을 처음으로 접했다. 그가 생애 처음으로 접한 이 신학책이 그의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몰트만은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신정론과 고난, 희망의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인간을 가두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전쟁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합리성이 인간의 악한 성향을 통제하기보다는 인간의 악한 성향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몰트만은 이렇게 끔찍한 악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절대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악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물음을 가졌다. 그가 신정론의 문제를 그의 주된 신학적 문제로 다루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동시에 그는 포로수용소 생활을 통해 고난과 희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포로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낙담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는

3) Reinhold Niebuhr,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2 vols. (New York: C. Scribner's sons, 1941-43).

지를 포로수용소의 삶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미군 군목으로부터 받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⁴⁾

그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포로수용소 안에조차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가 신학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곳은 YMCA가 운영하던 노턴(Norton) 포로수용소였다.

몰트만은 젊은 나이에 삶의 비참한 면들을 이미 경험한 상태로 독일 함부르크로 돌아왔다. 당시 22세의 나이였던 그는 2차대전 동안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폐허가 된 고향을 보았다. 그는 2차대전 가운데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처럼 양심을 지킨 독일 고백교회에게서 희망을 발견했으며, 전쟁에서 살아남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고백교회의 모습을 좇음으로써 올바른 신학을 회복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몰트만은 전후 독일이 문화의 재건을 통해 2차 대전 당시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데만 주력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그는 영국 더비(Derby) 근처의 스완윅(Swanwick)에서 열린 기독교학생운동(Student Christian Movement)에 참여한 후 이 모임의 영향을 받아 괴팅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괴팅엔 대학교 교수들이 칼 바르트(Karl Barth)의 제자들로서 독일의 고백교회에 관여한 신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괴팅엔 대학교에서 몰트만은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을 완전히 섭렵했다.

그런데 몰트만은 괴팅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당대 많은 신학자들이 씩씩하고 있었던 신정론 문제를 더 깊이 다루기 시작했다. 전쟁 이전에 몰트만은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끔찍한 전쟁은 그로 하여금 세계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라는 문제에 관

4)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심을 두도록 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를 칼 바르트와 바르멘(Barmen) 학파처럼 좁게 이해하는 경우 2차 대전과 전후 사회에서 그가 비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가 보기에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바르트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신학자는 나치 정권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에 동참했던 고백교회 소속 목사 본 회퍼였다. 무엇보다 본 회퍼의 『옥중서간』⁵⁾이 그가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었다.

또한 몰트만은 당시 괴팅엔 대학교에서 교리사(Dogmengeschichte)를 가르쳤던 고백교회의 대표적 지도자 에른스트 볼트(Ernst wolf, 1902-1971)⁶⁾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사회 참여 및 사회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몰트만은 괴팅엔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반트(Hans Joachim Iwand, 1899-1960)를 통해 루터와 헤겔의 영향도 받아, 루터의 이신칭의론과 십자가의 신학을 그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헤겔과 이반트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이반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그의 신학의 중심 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반트는 ‘오직 은혜’(Sola Gratia)를 믿는 ‘오직 믿음’(Sola Fide)만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루터의 이신칭의론을 따른다.⁷⁾

몰트만은 1945년에서 1949년까지 괴팅엔 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5)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44. 1978).

6) 이러한 관심과 관련되는 블로흐의 대표적 저작은 *Peregrinatio. Studien zur reformatorischen Theologie und zum Kirchenproblem* (Bd.2: ..und zur Sozialethik). 2 Bände (München: Kaiser 1954-1965); *Barmen: Kirche zwischen Versuchung und Gnade*. 1957; 3. Aufl., unveränd. Nachdr. d. 2. Aufl., (München: Kaiser 1984); *Sozialethik. Theologische Grundfragen*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5)이 있다.

7) 이것이 이반트가 1930년에 제출한 교수취임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다. *Rechtfertigungslehre und Christusglaube-eine Untersuchung zur Systematik der Rechtfertigungslehre Luthers in ihren Anfängen*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6).

가르친 폰 라트(Gerhard von Rad, 1901-1971)⁸⁾와 괴팅엔 대학교에서 신약 신학을 가르친 고백교회 소속 루터교 신학자 케제만(Ernst Käsemann, 1906-1998)에게서 그의 성서신학의 기초를 얻었다. 그는 1934년부터 괴팅엔 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오토 베버(Otto Weber, 1902-1966)의 지도 아래 신학박사학위논문을 썼다. 그가 교회의 보편적 사명을 미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베버 교수의 영향이다.

몰트만은 괴팅엔 대학교의 신학부의 여러 교수들로부터 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지만, 일반적 평가에 따르면 몰트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희망의 원리』⁹⁾를 저술한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이다. 이 글 덕분에 몰트만은 세상과 인간의 악과 고난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그 가운데 희망을 찾는 방향으로 그의 신학 작업을 해나갈 수 있었다. 블로흐는 독일군이 1939년 3월 9일에 체코 프라하에 진입하기 직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다. 그는 현재 우리의 존재가 아직 완전히 실현된 존재이며 미래의 유토피아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 3권에서 종교철학을 다루면서 진정한 창조는 시작에 있지 않고 종말에 있으며 주어진 것을 변형시키는 창조적 인간이 우리의 현존재를 완성하는 종말에 비로소 창조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블로흐의 태도가 몰트만의 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몰트만이 종말론을 신학을 이해하는 틀과 관점으로 삼은 것은 블로흐의 인식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몰트만은 1960년 스위스 휴가에서 이 책을 탐독하면서 “왜 기독교 신학은 희망이라는 주제를 버렸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희망의 영을 회복해야 한다고 여겼다.

8) 폰 라트의 대표적 저술은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and 1: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Überlieferung Israels* (München: Kaiser 1957)이다.

9) Ernst Bloch, *Da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 M.: Suhrkamp, 1959).

몰트만은 1952년 괴팅엔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오토 베버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쓰던 아내 엘리자베스 몰트만-벤델(Elisabeth Moltmann-Wendel)을 만나 결혼했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몰트만은 브레멘-바서호르스트(Bremen-Wasserhorst)의 개신교회(Evangelisch Kirche)에서 목회자로 섬겼다. 1957년 그는 네덜란드 신학자 아놀드 반 룰러(Arnold Albert van Ruler, 1908-1970)¹⁰⁾를 알게 되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역사적 실천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종말론적 희망과 연결할 수 있었다.

1958년 몰트만은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오토 베버의 권고에 따라 부퍼탈(Wuppertal)에 있는 신학교(Kirchliche Hochschule)의 교수가 되었다. 이 신학교는 본 회퍼가 소속되어 있었던 독일 고백교회가 운영했던 신학교이다. 이곳에서 그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Wolfhart Pannenberg)와 교체할 기회를 얻었다. 판넨베르그도 역사를 종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신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63년 몰트만은 부퍼탈 신학교를 떠나 독일 본(Bonn) 대학교의 신학교수가 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 『희망의 신학』을 출간했다.

『희망의 신학』은 “기독교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대한 연구”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33세의 젊은 신학자 몰트만을 일약 세계적 신학자로 만들어주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종말을 통해 역사를 보는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역사의 현재에만 매어 있던 실존주의신학과 세속화 신학의 영향을 받던 교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세계적 신학자가 된 몰트만은 1967년 튀빙엔(Tübingen) 대학교로 옮겨 1994년까지 그곳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으며, 현재 튀빙엔 대학교의 명예신학교수로 지내고 있다. 그와 함께 튀빙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아내 엘리자베스는 페미니즘 신학자였는데, 몰트만으로 하여금 그가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던 남성중심적인 관점과 판단의 한계들을 깨닫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10) Arnold Albert van Ruler, *De Vervulling van de Wet: Een dogmatische studie over de verhouding van openbaring en existentie* (Nijkerk: G.F. Callenbach, 1947).

III. 희망의 신학

1964년에 출판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세계 신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근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제시하는 종말론적 신학은 미래의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현세부정적 신학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지금 이곳에서 현실 세상의 역사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현실참여적 신학이다. 몰트만의 종말론적 신학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희망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각을 끌어가는 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만물이 희망의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지는 날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희망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현실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망가진 창조물과 창조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 블로흐가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정당한 이상향을 인간의 힘으로 되살리고자 한 반면에, 신학자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 보장해주는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근거로 우리의 현실 참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자 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출애굽의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이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약속하는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신앙의 바탕에는 미래를 향한 기대의 태도, 즉 종말론적 태도가 깔려 있다.

그런데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현재와 분리된 미래 자체가 아니라, 역사의 현실에서 발휘되는 현실의 미래 가능성이다. 이는 현재 세상에서 고난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억압을 견디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결국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현실에서 혁명과 변혁,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에

의하면 신학자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 역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일보다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따라 그것들을 변혁시키는 실천적 일을 해야 한다.¹¹⁾

블로흐가 인간중심주의와 무신론을 통해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통해 현실 변혁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했다면, 몰트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가운데 작용함으로써 현실 변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퍼탈 신학교에서 동료로 있었던 판넨베르그가 계시로서의 역사(Geschichte als Offenbarung)를 강조한 데 반해, 몰트만은 그러한 역사 이해는 닫힌 체계로서의 역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거부하며, 현재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제시되는 계시보다는 미래의 종말로 향해 가는 변혁적 행위를 더욱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몰트만에게 희망은 현실의 인간이 미래를 향해 혁명적으로 열려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몰트만은 판넨베르그 신학을 보수적 신학이라 비판하면서, 칼 바르트(Karl Barth)와 에밀 부르너(Emil Brunner)의 신학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비록 몰트만은 칼 바르트와 그의 후예들이 활동했던 고백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역사적이고 보수적이고 비변혁적이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바르트의 종말론은 역사를 시간과 영원의 변증법을 통해 이해하고 칸트(Immanuel Kant)의 초월적 종말론의 벽 안에 갇혀 현실 역사의 변혁적 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¹²⁾

몰트만은 희망 개념을 신학의 핵심 개념으로 삼는데, 그에 의하면 종교와 신학이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인간과 세계를 변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몰트만은 세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목적을 제시하며 그 목적으로 나아가

11) 몰트만은 이 점에 있어서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지양하고 실천과 적용으로서의 신학을 추구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통찰과 일치한다.

12) Jü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London: SCM, 1967), p. 51.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가 종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과제를 이룰 때 일종의 메시아적 기능이 이루어진다. 몰트만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교나 신학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이러한 희망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발견하며 지금 이곳에서의 현실을 그 희망의 빛 안에서 해석하려고 한다. 그의 이런 도식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분리될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경우 그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죽은 믿음으로 전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거나 전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희망하는 것이다. 부활의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계는 희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능성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이 가능성들 때문에 희망은 하나의 백일몽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희망이 된다. 그러할 때 부활의 희망은 그 희망을 믿는 자들에게 불의한 현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종말론적 희망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모든 가능성으로 충만해 있다. 희망은 헛된 유토피아를 선전함으로써 현실을 속여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희망 자체가 현재의 행복이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일시적이고 죽어가며 죽은 것에 대해서도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몰트만이 희망에 특히 관심을 둔 계기는 그의 포로수용소 생활이었다. 그는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고 미래가 투명했지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데 반해 미래를 포기한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희망의 생명력을 체험했다. 그가 보기에 희망의 소유 여부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분수령이었다. 한편 몰트만은 성경 연구를 통해 성경이 미래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그가 발견한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

님이 약속하시고 인간이 그 약속을 믿고 종말론적 희망을 갖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종말론적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안정된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모세가 부유하고 안정된 이집트로부터 불확실한 광야를 통해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사건과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미래의 종말론적 희망이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 현실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몰트만은 비록 블로흐의 희망의 철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제를 미래의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블로흐의 통찰을 받아들여 그의 종말론적 희망의 신학을 완성할 수 있었다.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는 종말론적 희망 그 자체이다. 그에 의하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말론적 미래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종말론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종말론적으로 존재하게 될 현실을 지금 이곳에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성취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현실을 변혁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 역사가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제공한다.

IV. 몰트만의 종말론적 신학

『오시는 하나님』¹³⁾에서 몰트만의 종말론적 신학은 20세기에 다양하게 제시된 종말론들과 관련해서 독특성을 지닌다. 20세기 신학에

13) Jürgen Moltmann, *The Coming of God: Christian Eschat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6).

서 종말론은 역사의 종말이나 역사의 내적 완성을 다루거나 천년왕국과 묵시사상의 관계 등을 다루는 이론적 문제들만을 다루지 않는다. 20세기의 종말론은 20세기 초반에 인류가 경험했던 1,2차 대전의 끔찍한 경험에 대해 대답해야 할 과제가 지니고 있었다. 역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낙관적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 신학과 사상은 1,2차 대전에서 확인되는 인간 이성의 무력함과 인간의 잔혹함과 죄악 앞에 인간의 역사는 과연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 이성이 인간의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조화롭고 이성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근대 계몽주의의 꿈이 한 순간에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 이성이란 인간의 욕구에 대해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그 욕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 앞에 아무런 비판도 못하고 그저 인간 욕구에 철저히 봉사하는 도구적 이성에 불과하다는 포스트모던적 인식이 유럽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신학의 종말론의 문제는 신학적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했다. 그 문제는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에 인류는 끔찍한 전쟁을 거치면서 위기를 경험했으며 이 위기는 우리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을 밝혀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은 상당 부분 인류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종말론이 그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자초한 종말론적 위기상황의 현재 역사를 새롭게 변혁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올 때 현재 역사는 일시적 역사에 그치지 않고 성취될 완성을 향해 가며 종말론적으로 성취된 완전한 존재로 되는(becoming) 역사이다.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주장한 계몽주의를 신봉했던 유럽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 이성의 무력함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독

일 내의 유대인 사상가들은 계몽주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들의 경전 구약성경에서 재발견한 것은 유대교적 메시아주의였다. 이전에 그들은 신에게서 메시아적 희망을 찾는 유대교의 관점을 버리고 인간 이성을 역사의 동력이자 기준으로 삼았던 계몽주의를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인간 이성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도덕적 완전성을 이룰 수 있으며 인간 이성이 발전할수록 인류 역사도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계몽주의 역사관을 버리고 유대교적 구원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1,2차 대전과 아우슈비츠 사건 등을 거치면서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종말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우선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뜻한다. 몰트만에 의하면 죽음의 불안은 인간을 위협하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넓은 영역을 열어주며 우리 영혼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 몰트만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그림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인데, 죽음 이후에 영혼이 불멸한다고 여긴다. 나머지 하나의 그림은 성경에 묘사된 그림인데, 죽은 자들이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긴다. 전자는 죽음이 영혼에 아무런 손상도 줄 수 없다고 확신하는데 반해, 후자는 인간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전자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도 자기 초월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초월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으며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고통의 순간과 행복의 순간 모두 상실되지 않음을 뜻한다.

몰트만은 죽음이 원죄의 결과라는 견해와 죽음이 인간의 자연적 수명의 끝이라는 견해와 관련하여, 기독교 신학의 틀에서 볼 때 두 명제가 서로 모순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이해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 대안에 의하면 죽음은 연약하고 시간적인 피조물의 특성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새

롭게 창조하심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특성이다.

몰트만은 죽음 문제와 관련하여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도 다룬다. 달리 말하자면, 죽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때까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영혼수면설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때까지 몸과 영혼과 함께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 가톨릭의 견해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벌을 아직 받지 않고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연옥이라는 중간상태에 있다. 영혼의 중간상태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죽은 사람들은 이미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런데 몰트만은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이 견해들이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는 희망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무엇보다 이 견해들이 죽은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 안에서 생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통을 더욱 강하게 하는가라고 묻는다.

이와 관련하여 몰트만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완성해주시는 삶을 향해 발전하고 활동해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하기에 그에 의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죽음 이후에 얻을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희망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 이해가 있기에 몰트만은 죽음과 관련하여 애도와 위로를 독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깊을수록 애도가 커지며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클수록 슬픔이 더하다.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겪는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데서 생기며 그 결과 생기는 자기 자신의 상실감에서 생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는 죽은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알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알고 그 결과 그 자신과 죽은 사람이 서로 교통할 수 있음을 아는데서 온다.

몰트만은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위와 같이 다룬 다음에, 역사의 종말인 하나님 나라를 다룬다. 그에 의하면 천년왕국론은 역사에 목적이 있다고 여기며 목시 사상은 역사에 종말이 있다고 여긴다. 몰트만은 천년왕국적 종말론을 실사적 천년왕국론과 종말론적 천년왕

국론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현재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인류의 마지막 시대로 해석하는 반면에, 후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현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새로운 미래로 이해하며, 이 미래를 이 세계의 종말과 모든 사물의 재창조와 연결한다.

그에 의하면 천천년왕국론은 역사의 종말이 천년왕국 이전에 온다고 여긴다. 따라서 천천년왕국론은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미래 시대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후천년왕국론은 역사의 종말이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의 역사의 기간을 가리킨다. 반(反)천년왕국론은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몰트만은 천년왕국론을 정치적 천년왕국론과 교회적 천년왕국론, 획기적 천년왕국론으로 나눈다. 정치적 천년왕국론에 따르면, 교회는 기독교 국가 속에서 주민의 주거지역과 국가 질서에 맞게 교구들과 관구들, 주들, 국가들 속에서 조직화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행사들이 정치적이고 공적인 행사가 되었다. 정치적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국가의 최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왕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민의 첫 번째 의무가 되었다. 사제들과 주교들의 교직은 국가교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지만, 기독교도 정치적 의미에서 종교화되었으며 정치적 관심에 의해 좌우되었다. 기독교의 봉사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으로 변했다.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정치적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게르만 족이 로마를 침략하고 서방 고트족이 로마를 정복함에 따라 이러한 정치적 천년왕국론도 로마제국의 몰락과 함께 붕괴되었다. 서방세계에서 로마제국과 같은 정치적 천년왕국이 붕괴됨에 따라 이제 교회의 힘이 강화되었으며, 종교적 동경을 하늘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피안의 종말론이 생겨났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한다. 몰트만은 이 종말론을 교회적 천년왕국론이라 부르는데, 이 경우 교회는 민족들의 어머니

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몰트만은 서양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교회적 천년왕국론이 근대의 탄생과 더불어 무너지고 획기적 천년왕국론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유럽인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정복했으며,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근대가 이와 같은 두 가지 힘을 획득한 것은 다음과 같이 종교적으로 해석되었다. 신대륙의 발견과 정복은 유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기독교 시대 혹은 기독교적 메시아 왕국은 세계의 종말 이전에 인류가 마지막으로 천년 동안 누리는 황금시대로 이해되었다. 과학의 발달이 이 황금시대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여겨졌다. 획기적 천년왕국론에 따르면 근대는 메시아적 희망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몰트만은 천년왕국적 종말론이 꼭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다룬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 천년왕국론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보편사적인 현재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종말론적 천년왕국론은 세계의 종말과 새 창조가 종말론적으로 연결된다고 여김으로써 미래를 기다릴 것을 가르친다. 또한 역사적 천년왕국론은 정치 세력이나 교회의 세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이론인데 반해, 종말론적 천년왕국론은 이 세계에서 고난받고 추방당하고 저항하는 삶에서 꼭 필요한 희망으로서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몰트만은 천년왕국론이 종말론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종말과 분리된 역사적 천년왕국론은 인간 역사를 재난으로 인도하지만, 종말과 결합된 천년왕국론은 인간이 현실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계속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하기에 그는 천년왕국적 종말론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오시는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지금 있는 만물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기독교적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몰트만은 특히 『오시는 하나님』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기독교적 저항윤리와 일관성 있는 제자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동적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밝힌다. 몰트만의 종말론적 천년왕국설은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전천년설에 가깝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전천년설과 다르다. 하지만 그의 종말론적 천년왕국설은 역사의 발전을 거부하고 극적인 종말론적 격변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예언서들과 묵시서들이 예언한 바가 실현되는 것을 종말로 여긴다는 점에서 전천년설의 일부 측면들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

몰트만은 종말론과 관련하여 오늘날 중요한 것이 이 시대의 “묵시 사상적” 분위기라는 가면을 찢어버리고 현실의 밑바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이 땅의 생명들을 현실의 밑바닥에 빠뜨렸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묵시사상적 범주들이 몰트만의 해석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묵시사상적 희망을 이야기하는 유대기독교적 전통이 과거에 무엇을 말하였고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몰트만에 따르면 묵시사상적 범주들로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는 입장은 종말론적 희망을 말하는 대신 파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몰트만은 묵시사상이 종말론에 속하며 역사에 속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몰트만은 종말론이 묵시사상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모든 사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는 측면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을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신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몰트만은 지금까지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다루었다. 이제 그는 전통적 신학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우주의 무한성에 대한 생각들을 신학 안으로 끌어들여 그의 우주적 종말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과학과 신학적 종말론 사이의 대화를 주선하고자 한다. 그는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적 이론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경험에 근거를 둔다. 그는 우주적 종말론

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회상하면서 갖는 희망의 틀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몰트만은 안식일과 종말론적 쉼이나를 주요 개념으로 삼아 양자가 약속과 성취, 시작과 완성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안식일에서 창조는 처음부터 창조의 완성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을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었다. 종말론적 쉼이나에서 새 창조는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모든 창조를 새 창조에 대한 예고와 서곡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완성한다. 창조는 시간과 함께 시작되며 공간 속에서 완성된다. 첫 번째 창조의 시간성은 그 자체에 있어 그의 약속이며, 새롭고 영원한 창조를 위한 그의 개방성이다.

몰트만이 세계의 완성에 대해 갖는 그림은 루터교의 정통주의 신학이 총체적인 세계파멸을 그리는데서 시작되었다. 그 그림은 고대 교회와 개혁신학이 세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그리는 데로 나아갔다가, 정교회 신학이 세계를 영광스러운 신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몰트만에 의하면 개혁신학의 전통은 새로움과 정체성의 통일성을 세계의 변혁이라 불렀다. 몰트만에 따르면 개혁신학의 전통은 세계의 개혁신학이라는 개념을 종말론적 견지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세계의 폐기가 세계의 변화 속에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은 시간의 종말을 종말론적 순간이나 영원의 핵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시간의 종말은 죽은 사람이 모두 통시적으로 동시에 부활되는 영원의 순간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시간의 종말은 모든 시간에 대한 영원의 현재이다.

몰트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 공간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와 위엄이 넘치고 밝은 그분 얼굴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없어졌다. 몰트만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장소(topos)

는 땅과 하늘에 대한 포괄적 진술이 말하는 바처럼, 하나의 피조된 장소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속에 마련된 공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거두어질 때, 그분의 영광을 가릴 때, 그분의 얼굴을 숨길 때 이 삶의 공간이 열린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위엄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하늘과 땅은 그들에게 마련된 공간을 잃어버린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드러난 얼굴 앞에서는 자신을 위해 존속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폐성 덕분에 얻은 존속을 그들 자신 안에서 상실한다. 하나님의 현존은 그분의 창조와 비교할 때 변화하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공간도 변화를 겪는다. 하늘과 땅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창조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몰트만은 공간의 종말을 언급한 후에 우주적 성전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현존이다. 이 현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영광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있다.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현존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하기에 새 예루살렘은 본래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우주적 쉼이나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만 경험되었고 하나님의 미래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직접적 현존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제사장들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러한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내주하실 때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창조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은 신적 종말론을 잘 나타낸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자기 영화에 있지도 않고 자

기실현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의 상호작용에도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함과 모든 피조물의 환호가 이러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마련한다.

그런데 몰트만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의지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간의 모든 유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함과 관련하여 무한히 풍요로운 하나님의 환상을 말할 수 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창조적 상상력을 뜻한다.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온다. 만일 창조가 변용되고 영화롭게 된다면,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를 자유롭게 정리하는 일에 그치지 않으며 그분이 자기 실현을 한 결과에 그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창조는 하나님의 신적 충만함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의 위대한 노래나 시나 아름다운 춤과 같다. 우주의 웃음은 하나님의 황홀함이다.

V. 개혁주의생명신학적 평가

몰트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희망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켰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교회가 미래의 지평을 세상에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잘 강조했다. 이를 통해 몰트만은 종교 사회주의 운동이나 자유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말론적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1960년대에 세계 곳곳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다. 로마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절정을 이루었다. 1960년대는 사람들이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새출발하던 시기였다.

몰트만은 신학의 부록으로만 취급되었던 종말론을 신학적 논의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기독교가 종말론적 희망의 종교임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종말론이 현세도피적 종말론이 아니라 현재 역사를 변혁시키는 힘을 제공하는 종말론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몰트만이 무엇보다 신학이 이론이나 학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현실을 변혁하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통찰과 맞닿아 있다. 몰트만은 모든 문제를 미래에서 미래에 의해 대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블로흐의 사상을 자신의 신학의 틀로 받아들여 신학화 하면서도 블로흐의 무신론적 전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혁주의신학이 일반은총 차원에서 일반적 지식을 성경에 비추어 취사선택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판넬베르그는 기독교 신앙이 묵시문학과 비교되어 지니는 특징이 선취에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맥락 위에서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사실의 선언이라기보다는 희망의 언어이다. 즉 ‘약속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를 약속과 선취의 도식 안에서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향해 비취지는 빛이다.

종말론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창조신앙이다. 무로부터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새 창조를 희망한다. 그의 신앙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것도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바로 거기에서 과멸에 대항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그로 하여금 땅에 충실하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두려움이 때론 인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삶에 더욱 최선을 기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삶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몰트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기독교적 희망으로 해석하였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보았으며, 약속과 선취의 도식 안에서 종말을 바라보

며 희망할 수 있었다. 종말론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두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다. 이 신앙 안에서 삶의 역동성은 희망찬 역동성이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기대로 환원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신앙적 종말론은 땅에 대한 책임을 더욱 끈고히 했으며,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의 유대인 대학살 등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종말론을 부활 안에서 재해석하고 재발견한 몰트만의 희망이 ‘만들어진 신’을 외치는 오늘날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대답 없는 신이라고 비난하며 신의 소재를 묻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까? 종교 간의 대화를 넘어서 무신론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디서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최근 공공신학이라는 새로운 운동 차원의 신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몰트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천적 차원의 종교적 방향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실에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기독교의 재발견을 소망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전통적 개혁주의신학에 비해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을 강조한다. 그런데 몰트만은 종말론적 희망이 현재 일그러진 현실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몰트만은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입장과 접촉점을 갖는다.

(백석대학교)

참고문헌

- Bloch, Ernst, *Da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 M.: Suhrkamp, 1959)
-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44. 1978)
- Iwand, Hans Joachim, *Rechtfertigungslehre und Christusglaube-eine Untersuchung zur Systematik der Rechtfertigungslehre Luthers in ihren Anfängen*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6)
- Moltmann, Jürgen, *The Coming of God: Christian Eschat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6)
- Moltmann, Jürgen, *Theology of Hope* (London: SCM, 1967)
- Reinhold Niebuhr,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2 vols. (New York: C. Scribner's sons, 1941-43)
- van Ruler, Arnold Albert, *De Vervulling van de Wet: Een dogmatische studie over de verhouding van openbaring en existentie* (Nijkerk: G.F. Callenbach, 1947)
- von Rad, Gerhar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and 1: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Überlieferung Israels* (München: Kaiser 1957)
- Wolf, Ernst, *Barmen: Kirche zwischen Versuchung und Gnade*. 1957; 3. Aufl., unveränd. Nachdr. d. 2. Aufl., (München: Kaiser 1984)
- Wolf, Ernst, *Peregrinatio. Studien zur reformatorischen Theologie und zum Kirchenproblem (Bd.2: ..und zur Sozialethik)*. 2 Bände (München: Kaiser 1954-1965)
- Wolf, Ernst, *Sozialethik. Theologische Grundfragen*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5)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Jürgen Moltmann's Eschatology from the Reformed Life Theology

Sungjin Chang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Jürgen Moltmann's theological background, his Theology of Hope, his eschatology and its relation with Reformed Life Theology. First of all, Moltmann emphasizes that the revelation of God has a character of promise that can be explained as hope. Moreover, the church with the revelation of God has to open the future to the world. Through this Moltmann points out some problems of Christian Socialist Movement, liberal theology and Existential Theology, while showing the meaning of eschatology of Holy Nations Movement. Moltmann brought the eschatology to the top in order to emphasize that Christianity is the religion of the hope. Moltmann also emphasizes that theology can not be merely a theory or a study. it should become an action which can change the reality of the world. I suggest that this matches with Reformed Life Theology. Reformed Life Theology emphasizes Holy Spirit Movement and Prayer Movement more than traditional Reformed Theology. However, Moltmann emphasizes that the reason an eschatological hope can affect to the distorted reality of the world is the presence of Holy Sprit. I suggest that Moltmann has a common with the Reformed Life Theology which emphasizes Holy Spirit Movement and Prayer Movement.

Key Words: Jürgen Moltmann, Reformed Life Theology, Theology of Hope,
Eschatology, The Coming God

투고자 및 투고자 약력

장성진: Long Island University C.W.Post Campus (B.A.),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조직신학 박사과정(Ph.D. candidate), 백석
정신아카데미 전임연구원,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이메일: sjchang@bu.ac.kr

투고일: 2011년 9월 15일. 심사일: 2011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0일